#1 행사시작전 멘트

-입장하시는 분들은 입구에 마련된 티켓 부스에서 나눠주는 티켓을 반드시 수령해주세요.

-영화 상영 후 진행되는 영화 퀴즈 참여와, 경품 추첨 시 경품 수령을 위해 티켓에 있는 티켓 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티켓 분실 시엔 당첨되더라도 경품 수령이 불가하오니, 티켓 분실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현재 스크린에 메타버스 콘텐츠 공모 수상작이 상영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준비된 부스에 방문해주세요.

-행사 시작 전 연시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옥상정원 영화제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하시면 투명 포토카드를 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게시물 업로드 후, 스태프 증을 메고 있는 연시 스태프에게 확인 받고 포토카드를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여 영화 관람 중 추울 수 있습니다. 입구 쪽에 담요를 준비해 두었으니 추우신 분들은 받아가세요.

-음식물은 뚜껑이 있는 견고한 용기에 있는 음료만 반입 가능합니다.

-취식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 2 영화 시작 전

[인트로]

(세린) 안녕하세요. 제 7회 옥상정원 영화제 <비행>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연시 15기 회장 조세린

(정현) 부회장 최정현입니다.

(세린)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옥상정원 영화제 준비에 힘써주신 도서관 선생님들과 연시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만큼, 쉽지 않으셨을 텐데 도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정현) 맞아요, 옥상정원 영화제가 열리는 것도 3년 만이잖아요. 저희도 그렇지만, 아마 여기 계신분들도 옥상정원 영화제가 무엇인고, 저희 연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소개부터 드려볼까요?

[연시 소개]

(세린) 연시는 ‘연세 시네마 클럽’의 준말로, 연세대 학술문화처 도서관 Media Commons 산하의 영화 클럽입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연세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2007년 이래 15기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현) 맞아요. 매년 3월 초 리크루팅을 진행해 1년 간 활동 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는 매달 15개의 추천작을 선정해서 포스터와 함께 업로드하고, 매달 두 번 함께 학술정보관에서 영화를 보고 정기 대화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 자료를 다른 학우분들께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의 추천작과 정기대화 내용은 인스타그램, 그리고 삼성학술정보관 3층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린) 이외에도 전주국제영화제나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은 영화제를 단체로 다녀오거나, ‘지옥의 영화캠프’라고 해서 3일간 내리 영화를 보는 MT를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 보는 것을 사랑하시는 분들께 연시는 정말 최고의 동아리 아닐까 생각해요.

(정현) 그리고 연시의 가장 큰 행사는 뭐니뭐니 해도 이 옥상정원 영화제잖아요. 영화제 소개로 넘어가볼까요?

[영화제 소개]

(세린) 좋아요. 올해로 7번째 개최를 맞이하고 있는 옥상정원 영화제는 2013년 ‘별 헤는 영화관’에서 시작되어 이어져온 연시 만의 영화제입니다. 저희가 학우분들께 전하고픈 ‘가을 밤의 이야기’를 옥상정원 영화제에서 두 편의 영화를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정현) 2019년을 마지막으로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었는데요. 올해는 옥상정원영화제가 3년만에 다시 열리는 특별한 해입니다.

(세린) 2022년 제 7회 옥상 정원 영화제의 주제는 <비행>입니다.

(정현) 비행하면 마치 새처럼 하늘을 나는 모습이 상상되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세린) 비행의 사전적 의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정현이 말한 것처럼 ‘공중에서 날아다님’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비행’의 의미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잘못되거나 그릇된 행위’라는 의미라는 뜻으로 쓰기도 해요. 이런 비행이라는 큰 주제를 바탕으로 저희 연시에서는 올해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와 <레이디 버드> 두 작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정현) 두 영화의 주인공들은 모두 불안정한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영웅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만 하며 지극히 평범하고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진저리 치며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세린) 두 인물 모두 자신의 현재를 벗어나기 위한 비행을 하는데요. 비행 끝에 다시 돌아온 일상은, 평범한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두 인물을 다시금 맞아줍니다.

(정현) 오늘 상영되는 영화는 준비된 두 작품 중 첫 번째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입니다.

2013년 개봉된 벤 스틸러 감독의 작품입니다. 감독이 연출과 출연을 동시에 맡았는데요. ‘라이프’라는 잡지사에서 포토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월터 미티가 잡지사의 폐간을 앞두고 마지막 잡지의 표지를 장식할 사진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후, 이를 찾기 위해 떠나는 모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얼핏 모험을 다루는 영화처럼 보이는 이 영화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영화인데요.

(세린) 저희도 저마다의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했지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현재'라는 기로 앞에서 무수히 많은 고민들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지금 현재도 충분히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작품입니다.

(정현) 저희 역시 코로나-19 한가운데에서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일상’이라 불렀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일상’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놓쳤던 아름다움을 다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며, 드디어 마주하게 된 연시의 옥상정원 영화제. 다시 시작되는 시간을 함께하며, 그 끝에 여러분의 ‘비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린) 이제 바로 상영을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몇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영화 상영이 시작 된 후,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른 관객들의 영화 감상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자리이동을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며, 혹시 자리이동이 필요할 시, 다른 분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양옆 통로를 통해 이동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현) 2. 영화 상영 중에는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3. 영화 상영이 끝난 후, 퀴즈와 경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 상영이 끝나더라도 바로 퇴장하지 마시고, 해당 이벤트에 끝까지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티켓 잘 소지하세요.

(세린) 그럼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다같이 월터의 상상 속으로 함께 떠나 보시죠!

#3 퀴즈

(세린) 영화 즐겁게 보셨나요? 그럼 영화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빠르게 영화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점수가 높은 3명에게는 상품이 있으니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정현)영화 퀴즈는 총 #문제로 카훗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됩니다.

-검색창에 ‘카훗’을 검색하고 이후 화면에 제시되는 핀번호를 통해 들어오시거나 제시되는 QR코드 인식하면 퀴즈 창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은 티켓 번호로 입장해 주세요. 퀴즈가 끝난 후, 티켓 번호 후 상품 증정이 진행되니, 티켓 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하고 티켓을 분실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손을 드시면 주위 연시 스태프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제 페이지 이후 정답페이지에서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린)

퀴즈 진행 시: 첫 1-2문제만 방법 설명. 이후에는 정답만 얘기하는 식으로 진행

-퀴즈 끝. 1-3등 호명

#4 경품

(정현) 마지막으로 경품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뽑힌 번호와 동일한 티켓 번호를 가지고 있으신 3분께 상품을 드립니다. 상품 수령 전 티켓 확인이 필요하며, 티켓 분실시 상품 수령이 불가하니 티켓이 잘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3등

-2등

-1등

#5 마무리

(정현) 3년 만의 열린 옥상정원 영화제, 어느덧 그 첫번째 밤이 끝나갑니다. 내일은 <레이디버드> 상영이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린) 참여해주신 모든분들, 도서관 선생님들, 연시 여러분 모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옥상정원 영화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시 15기 회장 조세린,

(정현) 부회장 최정현이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